

금요 양성 2025년 5월 30일 성령의 7가지 은사 (선물)

성령의 은사 -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

성령 강림 대축일을 준비하면서, 우리는 이사야서 11장 1-2 절에 나오는 **성령의 7가지 은사**에 대해 묵상해 본다. **가톨릭 교회 교리**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.

(가톨릭 교회 교리 1830)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삶은 **성령의 선물**로 지탱된다. 이 선물은 성령의 이끄심에 기꺼이 따르는 항구한 마음가짐이다.

(가톨릭 교회 교리 1831).이러한 성령의 일곱 가지 선물은 **지혜, 통찰, 의견, 용기, 지식, 공경과 하느님에 대한 경외**이다.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령의 선물들을 완전히 갖추셨다.[84] 성령의 선물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덕을 보충하고 완전하게 한다. 이 선물들은 열심인 신자들을 하느님의 감도에 기꺼이 순종하게 한다.

우리는 세례때에 이 선물을 받으며, 견진때에 그 선물들이 강화된다. 서약한 프란치스칸들인 우리에게는, 세례때의 약속과 하느님에 대한 봉헌이 서약때에 갱신된다. 그러므로, 이 선물들은 우리안에서 3번째로 강화된 것이다.

프란치스칸 영성은 **겸손, 단순, 하느님과 형제 자매들과의 깊은 연대와 관계**를 강조한다. 이 **성령의 7가지 선물**은 우리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. 그선물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여기에 설명한다.

- + **지혜**: 프란치스칸이 **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**을 볼 수 있고 감사와 경외의 영을 양육하도록 인도해 준다.
- + **통찰**: 우리가 **하느님 사랑의 깊이**를 이해하여 연민과 봉사의 삶을 살도록 도와 준다.
- + **의견**: **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정**을 내릴 때, 특히 가난한 사람과 변두리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다.
- + **용기**: 성 프란시스처럼 기쁨으로 **환난을 이겨낼**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 준다.
- + **지식**: **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** 서로와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연계성과 관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준다.
- + **공경**: 기도와 친절한 행위를 통하여 하느님께 대한 깊은 헌신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준다.
- + **하느님에 대한 경외**: 우리에게 **경외감과 겸손**을 불어 넣어 주어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상기시켜준다.

형제회안에서의 토론이나 저널에 답을 쓰기위한 질문들

- + 어떤 선물이 가장 크게 마음에 다가오는가? 어떻게 그것을 보여 줄 수 있는가?
- + 이 선물들이 가톨릭이면서 프란치스칸인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?
- + 프란치스 성인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이 선물들이 성인의 삶에서 또 그의 글 안에서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?

다음 주에는 **성령의 열매**들과 우리의 회칙을 사는 것이 어떻게 그 열매들을 예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에 대해 살펴보겠다.